

종합·해설

# 토론회 패널 4명중 1명 광주 인사로

## ■ 민주당 광주시장 배심원제 경선 룰

### 패널에게도 투표권 인정... 총 404명 당원전수 여론조사 3개 기관서 실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 4명의 패널 중 1명을 현지인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들 4명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또 경선의 50%를 차지하는 당원전수 여론조사는 3개 기관이 적합도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중앙당 공심위 최재성 간사는 1일 오전 영도포 당사에서 강은태·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예비후보 등 광주시장 경선 후보 대리인 3명이 참가한 토크에서 경선세부 규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모임은 최 간사가 경선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했고 이어 후보자 대리인의 질문과 의의제기가 이어졌으나 후보자 측의 요구가 대부분 무시돼 중앙당의 횡포가 심하다는 후보자 측의 불평을 샀다.

◇시민공천배심원제(50%)= 최 간사는 광주에 적용되는 배심원제를 '융합형 시민공천배심원제'로 규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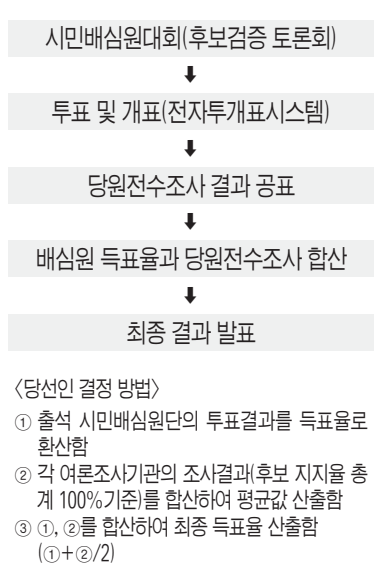
고 1인1표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 투표 전에 실시되는 후보 검증 토론회는 시민배심원 대표자 선서→후보자 영상 소개 및 연설→공통 질의 및 답변→후보 간 상호토론→선상 및 종합토론→배심원 서면질의→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사회자 1명과 패널 4명이 참여하고 이들 패널에게도 투표권이 인정돼 배심원단 투표권 보유자는 404명이 된다. 패널 4명 중 1명은 광주지역 인사로 배정되지만 중앙당에서 미리 대상자 풀(pool)로 3명을 후보자에게 고지한 뒤 후보자에게 1명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지 배심원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배심원 경선 24시간 전까지 무작위 추출로 200명을 뽑되 지역 ±10%, 성별 ±12.5%, 연령 ±12.5%의 편차는 인정하기로 했다.

배심원 추출 시에는 후보자별 참관

## ■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절차



인 1명씩 두도록 했으며 전문(200명) 및 현지 배심원의 출석을 차이에 따른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 출석 시민배심원단 투표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배심원제 배정 50%를 현지 25%, 전문 25%로 나누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배심원은 직접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신청을 통해 서면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당 2개씩 할 당된다.

◇당원전수조사(50%)= 전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중앙당 선관위가 선정한 A급 7개 여론조사기관 중 후보 대리인이 추천한 3개 기관이 나눠서 실시한다.

중앙당은 또 당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전체 당원에 대해 1번씩만 전화 조사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설문은 ▲ 본인 확인 ▲당원 여부 확인 ▲적합도 조사 순으로 하기로 했다.

설문은 구체적으로 본인 및 당원 여부를 확인한 뒤 "000년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는 (경력 2가지)를 지낸 △△△씨(3명) 중 누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 중 후보자 소개와 보기는 순환식으로 이뤄지며 적합도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을 때는 한 번에 거쳐 재질문이 시도된다.

한편, 당선인 결정은 ① 출석 시민배심원단 투표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현지, 전문으로 나눠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② 3개 여론조사기관의 당원전수조사 결과(후보 지지율 총계 100% 기준)를 합산해서 평균값 산출→③ ①, ②를 합산, 최종 득표율 산출(①+②/2)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일 오전 국회 정보위 위원장실에서 최병국 위원장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野 “국방장관·해참총장 해임해야” 與 “先구조... 인책론은 정치 공세”

## ■ 여야 천안함 긴급현안질의 앞두고 신경전

### 국회 정보위, 6일 국정원 보고 청취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지방선거 판도를 좌우할 중대 정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천안함 실종자 구조 및 인양작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다 폭발 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1일 민주당은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인 책론을 내세우며 전방위 공세에 들어갔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실종자 구조에서 진상 규명 단계로 옮겨감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내에는 천안함 사고의 최종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실종자의 생사여부가 확인되면 인책론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의 은폐 의혹을 집중 조망하고 있다.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이른바 '비밀주의'가 국민적인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재차 진상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 회의에서 "천안함 교신내용을 공개하고 생존자 격리 수용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긴급현안질의에 이종걸, 전병헌, 문화진 의원을 배치하고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사태가 '북풍(北風)'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이번 천안함 침몰 사태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 보수층 결집으로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인위적인 북풍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인책론'에

대해 부적절한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구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침몰 사고의 원인규명, 생존자 수색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군 지휘부에 대해 지금은 책임론을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책임론이 조기에 확산되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정몽준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고의 진상은 밝혀져야 하고, 책임 규명도 따라야 하지만 생존자 구조만큼은 촛각을 다투지는 않는다"며 '선(先)구조 후(後) 진상조사'의 입장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오는 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여부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물론 국군 기무사령관·정보사령관의 출석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박광태시장 “특정후보 지지 없다”



과 관련, 특정인을 지지하는 '박심'은 없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선거 입지자 환경정책 반영 '광주환경네트워크' 구성

광주·전남 녹색연합 등 지역 6개 환경단체는 1일 "6·2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올바른 환경정책을 반영·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정책특별기구인 '광주환경정책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참여단체는 광주·전남녹색연합을 비롯,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 의숲, 광주녹색교통운동, 시민생활 환경회의이다. 또 시민단체 밝은세상과 광주경찰서원이 협력단체로 활동할 예정이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청신호

### 김영진의원 요청에 헬벤 의장 “적극 검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UN/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서구을·사진)에 따르면 지난달 파리에서 만난 데이비스 헬벤 유네스코 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기록물의 UN/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데이비스 헬벤 의장은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행사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금산공인중개사**  
T.681-5888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기/오피스/유흥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김진군 칠랑면 칠랑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유 910㎡
-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득 -도로점유 허가 득 -미망에서 경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원공 칠랑농공단지개발 유망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창고부지 (서광주역 2순환도로변)**

- 창고부지 약 2600㎡(창고 490㎡)
- 대지 약 950㎡
- 매매가: 22억(조정가)
- 대지,창고 분할 매매가능
- 물류,창고부지로 최적지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 위 치 ●

화순읍 전대령면민년산부근 광주에서 10분 거리 80+선도로 백암관광도로로 전대령면 원의사실 이용가능 민영산,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여 등산,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전원생활 최적지입니다. 황토 흙벽돌 100톤 사용하고 숲도조물, 온돌조물기 뛰어, 40여 수련후 민영피로 회복 아주 좋고 주인이 직접으로 건강을 생각하여 경성품이 지은 집입니다. (역사, 변호사, 교수, 박사님 최적지)

**매매가: 6억 8천만원 (조정가능)**

- 대지: 250평 • 건평: 73평
- 지하 1층, 지상 2층(복층)
- 주차 고급 자동차용 시설 차량 2대 가능
- 최신 CCTV 8대 설치
- 방 4개/욕실 3개
- 난방시설: 심아전기
- 조명: 전디, 소나무
- 건축 준공: 2009년 10월 30일
-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 고아 슬라브, 한옥 전통기와
- 외부 구조 최고급 수입 대리석 시공
- 실내인테리어: 휴향도 벽돌, 휴향도 바닥, 편백나무, 소나무 미송
- 2층 방기루 테라스 12평 (편백나무, 스키움 시공)

● 주민최저가 ●  
꼭하시민만전화상담  
☎011-634-4114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 아파트론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회사매각공고**

- ◆ 위 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신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